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3. 문장 (문제)**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23004-0045]

## 01 &lt;보기&gt;에 제시된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활동]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예문]을 탐구해 보자.

문장 성분은 해당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구분된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필수 성분이고, 부속 성분은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이다. 그리고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주성분에 속하고, 관형어,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속한다. 그리고 독립어는 독립 성분에 속한다.

[예문] ㉠물은 ㉡얼음이 ㉢되었다.

- ① ㉠ 앞에 ‘과연’을 삽입하면 부속 성분이 문장에 포함된다.
- ② ㉠ 앞에 ‘차가운’을 삽입해도 문장은 주성분으로만 구성된다.
- ③ ㉠을 ‘물이’로 바꾸어도 문장 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을 ‘얼음으로’로 바꾸면 보어 대신에 부사어가 문장에 포함된다.
- ⑤ ㉢을 ‘아니었다’로 바꾸어도 문장은 필수 성분으로만 구성된다.

[23004-0046]

## 02 &lt;보기&gt;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한다. ㉠다의어의 경우 같은 형태의 서술어라도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에게 책을 빌렸다.’에서 ‘빌리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지만, ‘나는 일손을 빌렸다.’에서 ‘빌리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잘 가던 손목시계까지 멈추었다.<br/>우리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li> <li>③ { 동생은 형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br/>그 사람들은 개울에 다리를 놓았다.</li> <li>⑤ { 은행에서 고객의 집을 담보로 잡았다.<br/>잠복하던 경찰이 범행 현장을 잡았다.</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 어제는 온종일 함박눈만 내렸다.<br/>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li> <li>④ { 우리는 수레를 뒤에서 힘껏 밀었다.<br/>그 친구들은 나를 반장으로 밀었다.</li> </ol> |
|---|--|

[23004-0047]

## 03 &lt;보기&gt;의 ㉠, ㉡에서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사실 그 아이는 맨 먼저 어머니의 옆을 지켰다.  
 ㉡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지는 달을 바라보았다.

- ① ㉠의 ‘그’는 지시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② ㉠의 ‘맨’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③ ㉠의 ‘어머니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④ ㉡의 ‘학교’는 관형격 조사의 결합 없이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⑤ ㉡의 ‘지는’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23004-0048]

## 04 &lt;보기&gt;의 ㉠~㉢에서 밑줄 친 부분의 시간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어제 보니 우리 동네에 가게가 새로 생겼더라.  
 ㉡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을 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 이 강은 예전엔 맑았었는데 현재는 오염되었다.

- ① ㉠의 ‘생겼더라’에서 ‘-더라’는 과거에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의 ‘갈라진’에서 ‘-ㄴ’은 논바닥이 갈라진 것이 과거에 완료되어 갈라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의 ‘맑았었는데’에서 ‘-았었-’은 강이 맑은 것이 현재에 지속되지 않는 과거의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의 ‘생겼더라’, ㉡의 ‘지었다’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나타내고 있다.  
 ⑤ ㉠의 ‘어제’, ㉢의 ‘예전’은 일이 일어난 시점이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다.

[23004-0049]

## 05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사동문은 주로 사동사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사동사는 대개 대응하는 주동문의 동사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동사가 쓰이지 않더라도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되어 쓰이면 사동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동반되는데, ㉠,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동문		사동문	
아들이 약을 먹었다.	→	어머니가 아들에게 약을 먹였다.	㉠
오빠가 집에 남았다.	→	우리가 오빠를 집에 남겼다.	㉡

- ① ㉠의 사동사에는 접미사 ‘-이-’, ㉡의 사동사에는 접미사 ‘-기-’가 결합되었다.
- ② ㉠, ㉡의 사동문에는 각각의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 포함되었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 ④ ㉠, ㉡에서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보다 각각 한 자리씩 늘었다.
- ⑤ ㉠의 주동문에서 주어라 지시하는 인물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고, ㉡의 주동문에서 주어라 지시하는 인물은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다.

[23004-0050]

## 06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객체 높임 표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 표현이 실현된 문장의 예를 들어 볼까요?

- ① 우리는 아버님께 용돈을 챙겨 드렸다.
- ② 그들은 손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왔다.
- ③ 어머니께 여쭙해보니 궁금증이 풀렸다.
- ④ 엇그제 뵈 선생님은 누구보다 멋있었다.
- ⑤ 나는 그때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23004-0051]

## 01 &lt;보기&gt;에서 ㉠~㉣의 문장 성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그 형은 물도 샀다.
- ㉡ 경치도 아름다웠다.
- ㉢ 그는 대학생은 아니었다.
- ㉣ 나는 그에게 빵을 주었다.

- ① ㉠, ㉢은 주성분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다.
- ② ㉡, ㉣은 모두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③ ㉠, ㉣은 모두 목적어를 문장에 포함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부속 성분이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⑤ ㉡, ㉣의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다.

[23004-0052]

## 02 &lt;보기&gt;의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그는 밥을 ㉠ 먹고 갔다.
- 그는 밥을 ㉡ 먹지 않았다.
- 그는 밥을 ㉢ 먹고 있지 않았다.
- 그는 밥을 ㉣ 먹고 가지 않았다.
- 그는 밥을 ㉤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 ① ㉠: 본용언 두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 ② ㉡: 본용언 한 개, 보조 용언 한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 ③ ㉢: 본용언 한 개, 보조 용언 두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 ④ ㉣: 본용언 두 개, 보조 용언 한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 ⑤ ㉤: 본용언 두 개, 보조 용언 두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23004-0053]

### 03 다음은 [활동]과 이를 수행한 '학생 1, 2'의 답이다. [A],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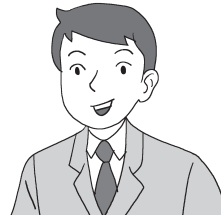
[활동] 문장의 구조(짜임)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 ㉠~㉥을 분류하시오.

㉠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았다.  
 ㉡ 비가 오니까 지금은 나가지 않겠다.  
 ㉢ 음식이 부드러웠지만 성량은 풍부하지 않았다.  
 ㉣ 전에 만난 형은 마음은 좋으나 현명하지 못했다.

학생 1: 나는 [A] 를  
 기준으로 '㉢'과 '㉠, ㉡,  
 ㉣'의 두 부류로 나누었어.



학생 2: 나는 [B] 를  
 기준으로 '㉠, ㉢, ㉣'과  
 '㉡'의 두 부류로 나누었어.



	[A]	[B]
①	안긴절을 포함한 겹문장인지의 여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겹문장인지의 여부
②	안긴절을 포함한 겹문장인지의 여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인지의 여부
③	두 절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인지의 여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겹문장인지의 여부
④	두 절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인지의 여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인지의 여부
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인지의 여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겹문장인지의 여부

[23004-0054]

04 <보기>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어떤 말이나 생각을 간접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포함될 것.
-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용형이 포함될 것.

- ①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라고 말했다.
- ②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냐고 말했다.
- ③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자고 말했다.
- ④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해.”라고 말했다.
- ⑤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자.”라고 말했다.

[23004-0055]

0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피동문에는 주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가 쓰인다. 하지만 ㉠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능동사도 있고, ㉡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만 특정 문맥에서는 피동사가 쓰일 수 없는 능동사도 있다.

	㉠	㉡
①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주었다.	외삼촌은 오빠한테 이 책을 얻었다.
②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배웠다.
③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주었다.
④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배웠다.	외삼촌은 오빠한테 이 책을 얻었다.
⑤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배웠다.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23004-0056]

## 06 다음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선생님: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 ㉡을 여러 형태의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고, 그 특징을 설명해 볼까요?

[자료]

‘안’ 부정문에서 짧은 부정은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를 사용하고, 긴 부정은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않다/-지 아니하다’를 사용한다. 그리고 ‘못’ 부정문에서 짧은 부정은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하고, 긴 부정은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한다. 한편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에는 ‘결코’, ‘전혀’ 등과 같은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 ㉠ 동생은 귀엽다.  
㉡ 그는 교육자답다.

학생:

【 보기 】

- a. ㉠은 짧은 부정을 통해 ‘안’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b. ㉠은 짧은 부정이든 긴 부정이든 ‘안’ 부정문일 때 주어 뒤에 ‘결코’가 쓰일 수 있습니다.  
c. ㉠은 긴 부정을 통해 ‘안’ 부정문으로, ㉡은 긴 부정을 통해 ‘못’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d. ㉠, ㉡은 모두 ‘안’ 부정문이든 ‘못’ 부정문이든 긴 부정일 때 주어 뒤에 ‘전혀’가 쓰일 수 없습니다.

① a, d

② b, c

③ c, d

④ a, b, c

⑤ a, b, d



[23004-0057]

## 01 &lt;보기&gt;의 ㉠~㉣ 중 '주어'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주어는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 주어는 체언 혹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격 조사가 붙어 나타나는데, 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 ㉠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오빠가 ㉡ 장학생이 아니라니 정말 의외였다.
- ㉢ 선생님께서 오시니 학생들이 인사를 했다.
- ㉣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리니 갈 수 없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3004-0058]

## 02 &lt;보기&gt;에서 ㉠~㉣의 밑줄 친 부분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나는 무표정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사태가 진정되기만 기다렸다.
- ㉡ 나는 그가 냉소적인 것은 알았지만, 그가 내 잘못을 가감 없이 지적해 우울했다.
- ㉢ 당시 우리는 학생들이 지나가도록 비켜 주었으나, 학교로 뛰어가던 그들은 멈추었다.

- ① ㉠의 '사태가 진정되기'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았지만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 ② ㉡의 '그가 냉소적인'은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어의 형식으로 나타낸 서술절이다.
- ③ ㉠의 '사태가 진정되기', ㉡의 '그가 냉소적인'은 모두 필수 성분을 다 갖춘 절이다.
- ④ ㉠의 '무표정한', ㉢의 '학교로 뛰어가던'은 모두 절에 주어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형사절이다.
- ⑤ ㉡의 '가감 없이', ㉢의 '학생들이 지나가도록'은 모두 부사어 기능을 하는 절이다.

[23004-0059]

### 0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동작상은 사건을 이루는 동작의 시간적 모습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인데, 이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동작상이 쓰인 문장 중에는 ㉠ 문맥에 따라 진행상과 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 ①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
- ② 아저씨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 ③ 실험실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 ④ 우리 형이 빵을 다 먹어 버렸다.
- ⑤ 아름다운 장미꽃이 시들어 갔다.

[23004-0060]

### 04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탐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 ㉡에 공통적으로 쓰인 높임 표현을 탐구해 보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니는 어제 수업이 없으신 선생님께 틀린 문제를 여쭙어보았다.</li> <li>㉡ 책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아끼시던 고서를 학교에 기증하셨어요.</li> </ul> </div>
탐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서는 ‘없으신’, ‘선생님께’, ‘여쭙어보았다’에 높임 표현이 드러나 있고, ㉡에서는 ‘많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아끼시던’, ‘기증하셨어요’에 높임 표현이 드러나 있다.</li> <li>• ㉠에서는 ‘수업’, ‘선생님’이 높임 표현과 관련되고, ㉡에서는 ‘책’, ‘할아버지’, ‘청자가 높임 표현과 관련된다.</li> </ul>
탐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에는 공통적으로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A]</span> 이 포함되어 있다.</li> </ul>

- ① 보조사를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인 객체 높임 표현
- ② 특수한 어휘를 통해,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인 주체 높임 표현
- ③ 특수한 어휘를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인 객체 높임 표현
- ④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높인 간접 주체 높임 표현
- ⑤ 부사격 조사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높인 간접 주체 높임 표현



[22004-0045]

## 01 &lt;보기&gt;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장 성분이란 해당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말한다.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단어, 구, 절 등 다양하며, 조사가 결합되기도 한다.

㉠ 선생님, 저 지금 집에 가도 돼요?㉡ A: 요즘에는 무슨 책 읽어?B: 요즘 읽는 책은 소설이야.

- ① ㉠의 ‘선생님’은 단어인 ‘선생님’이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 ② ㉠의 ‘지금’은 단어인 ‘지금’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 ③ ㉡의 ‘무슨 책’은 구인 ‘무슨 책’이 조사와 결합 없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 ④ ㉡의 ‘요즘 읽는’은 절인 ‘요즘 읽는’이 관형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 ⑤ ㉡의 ‘소설이야’는 단어인 ‘소설’이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22004-0046]

## 02 &lt;보기&gt;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서술어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거나,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날이 저물어 간다.’에서 ‘저물어 간다’처럼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때 가장 앞에 있는 용언을 본용언, 뒤따르는 용언들을 보조 용언이라 한다. 가장 앞의 용언이 문장의 의미 구성에 핵심적이고 뒤따르는 용언들은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매개하는 어미에는 ‘-아/어, -게, -지, -고’ 등이 있다.

㉠ 자전거가 완전히 망가졌네.㉡ 정원의 장미꽃이 아름다웠다.㉢ 언니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다.㉣ 그 아이는 밥을 통 먹지 않았다.㉤ 여기서 라디오 방송이라도 듣고 있어 봐.

- ① ㉠의 ‘망가졌네’는 동사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② ㉡의 ‘아름다웠다’는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③ ㉢의 ‘걱정이다’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④ ㉣의 ‘먹지 않았다’는 본용언 ‘먹다’와 보조 용언 ‘않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서술어이다.
- ⑤ ㉤의 ‘듣고 있어 봐’는 본용언 ‘듣다’와 보조 용언 ‘있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서술어에 본용언 ‘보다’가 연결된 두 개의 서술어이다.

[22004-0047]

### 03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쓰인 부사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서술어나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 다양한 대상을 꾸미지만, 그 대상은 어떤 성분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사어를 ㉠ ‘성분 부사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부사어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데, 이러한 부사어를 ㉡ ‘문장(절)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또 부사어 중에는 ㉢ 그 부사어가 쓰인 문장과 앞 문장을 의미적 관계에 따라 접속해 주거나 단어와 단어를 접속해 주는 부사어도 있다.

| 보기 2 |

만약 이 향아리가 정말 진품이라면 국보로도 지정될 만합니다. 빛깔 및 형태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을 버텨내면서도 크게 손상된 곳도 없이 원형을 거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전문가들의 감식 결과에 따르면 불행히도 이것이 참 잘 만들어진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① ‘정말’과 ‘거의’는 서술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② ‘아주’는 관형어를, ‘참’은 부사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③ ‘크게’와 ‘오늘’은 뒤따르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④ ‘만약’과 ‘불행히도’는 뒤따르는 절 전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⑤ ‘및’은 단어와 단어를 접속해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22004-0048]

### 04 <보기>에 제시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장은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단위이다. ㉠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누락된 경우, ㉡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문장 내에 누락된 경우,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등의 문제를 가진 문장은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문장 표현을 써야 한다.

- ① ㉠: 별일 없을 때는 음악이나 영화를 보는 것이 내 취미야.
- ② ㉡: 내가 종업원에게 주문하고 나자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다.
- ③ ㉢: 내가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 ④ ㉣: 그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내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 ⑤ ㉤: 아내는 남편에게 고기도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그에 접시에 고기를 더 담아 주었다.

###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정해진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1)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1)에서 서술어로 쓰인 동사 ‘잡다’가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잡는 행위를 하는 주체와 잡는 행위의 대상이 갖추어져야 한다. 곧 행위의 주체와 대상은 ‘잡다’가 의미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요소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문장에서 ‘고양이가’, ‘쥐를’ 등과 같이 구체적인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므로,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와 같다.

(2) 별빛이 반짝이다.

(3) 햇살이 밝다.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1)을 타동사문, (2)를 자동사문, (3)을 형용사문이라 부를 수 있다. (1)의 타동사문은 두 자리 서술어, (2)와 (3)의 자동사문과 형용사문은 한 자리 서술어이다. 한 자리 서술어란 필수적 문장 성분 하나를 가진다는 뜻이고, 두 자리 서술어란 필수적 문장 성분 둘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 필수적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4) 삼촌은 조카에게 용돈을 주었다.

(5) 그녀는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6) 그는 군인이 아니다.

(4)의 ‘조카에게’, (5)의 ‘며느리로’, (6)의 ‘군인이’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특히, 학교 문법에서는 (6)의 서술어로 쓰인 형용사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필수 성분과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다.’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 ‘되다’ 바로 앞에 오는 필수 성분을 보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가 그치다.’의 서술어 ‘그치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볼 수 있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다.’의 서술어 ‘그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볼 수 있다.

## 05

[22004-004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구두가 굉장히 반짝이네.
- ㉡ 초저녁부터 달이 휘영청 밝았다.
- ㉢ 그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아니고 4번이다.
- ㉣ 마당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우리 형이다.
- ㉤ 우리는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 ① ㉠의 ‘반짝이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굉장히’는 필수적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의 ‘밝았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초저녁부터’와 ‘휘영청’은 필수적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의 ‘아니고’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2번이’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 ④ ㉣의 ‘주는’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마당에서’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 ⑤ ㉤의 ‘삼을’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전화위복의 계기로’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 06

[22004-0050]

㉡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계가 열두 시에 멈추다.  
그는 기계를 잠시 멈추었다.
- ②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
- ③ 조직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노인은 상반신을 움직여 겨우 일어났다.
- ④ 할머니의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다.  
소년은 우산살을 휘어 고리를 만들었다.
- ⑤ 정책 실수로 기업의 재정이 크게 다쳤다.  
나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22004-0051]

01

〈보기〉를 읽고 각 문장의 짜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홀문장이라 하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 한다. 그런데 겹문장에는 ㉡ 두 개의 절이 이어진 문장도 있고 ㉢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도 있다.

- ① ‘그 아기가 이제야 잔다.’는 ㉠에 해당한다.
- ② ‘철수는 어제 영수와 서로 싸웠다.’는 ㉡에 해당한다.
- ③ ‘백두산은 장엄하고 금강산은 아름답다.’는 ㉡에 해당한다.
- ④ ‘나는 가을이 왔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는 ㉢에 해당한다.
- ⑤ ‘선생님은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에 해당한다.

[22004-0052]

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우리는 인정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님에 가까스로 마음을 놓았다.  
 ㉢ 아이들이 어머니가 만드신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 ① ㉠의 ‘할아버지를’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다.
- ② ㉡의 ‘그가’와 ‘범인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다.
- ③ ㉢의 ‘어머니가 만드신’과 ‘맛있게’는 체언을 수식한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고, ㉢에는 안은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03

[22004-0053]

〈보기〉의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철수가 집을 나섰다, 학교에 가려고.
- ㉡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시려고 집을 나서셨다.  
철수가 학교에 \*갔으려고 / \*가겠으려고 버스를 탔다.
- ㉢ 열심히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기분이 좋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철수는 훌륭한 학생이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 ㉣ 철수야, 학교에 공부하려고 가니? / \*가라. / \*가자.  
철수야, 학교에 공부하러 가니? / 가라. / 가자.
- ㉤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철수가) 집을 나섰다.  
\*철수가 유학을 가려고 어머니께서 저축을 하신다.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은 위치를 이동할 수 있군.
- ②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에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는군.
- ③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에는 서술어로 동사만 올 수 있군.
- ④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 뒤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올 수 없군.
- ⑤ ㉤을 보니,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문장은 앞뒤 절의 주어가 다를 수 없군.

[22004-0054]

0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명사절은 주로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 ㉠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 부모들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 지금은 영화관에 가기에 너무 늦었다.

- ① ㉠: 형이 잘못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 ② ㉡: 나는 그녀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③ ㉢: 나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전국 일주를 할 것이다.
- ④ ㉣: 우리 가족들은 일 년 후에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 ⑤ ㉣: 한국어는 초보자가 배우기에도 어렵지 않은 언어다.

[22004-0055]

05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 중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관형사절에는 그것이 수식하는 체언과 동일한 체언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략되어 있는 체언은 관형사절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쥐를 잡은 고양이가 낮잠을 잔다.’에서는 관형사절 ‘쥐를 잡은’에서 주어로 해석되는 ‘고양이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습 활동’을 해결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 문장에서 관형사절이 생성되면서 생략된 체언을 찾고, 그 생략된 체언이 관형사절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해석되는지 연결해 봅시다.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생략된 체언의 문장 성분
①	그 고양이가 잡은 쥐가 많다.		주어
②	형이 나에게 물려준 옷이 마음에 든다.		목적어
③	나는 어제 결혼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부사어
④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⑤	내가 아까 빵을 산 제과점은 이 지역의 명물이다.		

[22004-0056]

## 06 &lt;보기&gt;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장 종결 표현이란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 ㉡ 아직도 밖에 비가 오느냐?
- ㉢ 집에 들어왔으면 어서 손부터 씻어라.
- ㉣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서울로 출발하자.
- ㉤ 이제 보니 여기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 ① ㉠: 평서형 어미 ‘-는다’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현재의 사실을 서술하고 있군.
- ② ㉡: 의문형 어미 ‘-느냐’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답을 구하고 있군.
- ③ ㉢: 명령형 어미 ‘-어라’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군.
- ④ ㉣: 청유형 어미 ‘-자’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단독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군.
- ⑤ ㉤: 감탄형 어미 ‘-구나’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군.

[22004-0057]

0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시제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건 및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기준 시점은 발화시, 즉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발화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제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다.'라는 문장에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달리는' 행위와 '보는' 행위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보다'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쓰였으나 '달리다'에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였다. 이는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보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달리는' 행위는 현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보기 2]

- ㉠ 언니는 밥을 먹고 동생은 물만 마셨다.
- ㉡ 그 가수는 밝은 조명 아래에 서 있었다.
- ㉢ 나는 어제 친구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 ㉣ 어머니께서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대청소를 하신다.
- ㉤ 지금 그녀가 활짝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 ① ㉠: '먹고'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로, '마셨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해석된다.
- ② ㉡: '밝은'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로, '서 있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해석된다.
- ③ ㉢: '숙제하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도와주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도 현재로 해석된다.
- ④ ㉣: '들으면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하신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도 현재로 해석된다.
- ⑤ ㉤: '웃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맞이하고 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도 현재로 해석된다.

[22004-0058]

## 02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의미적으로 볼 때, 피동문은 어떤 행위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고 행위의 주체가 부사어로 나타나거나 생략된 문장이다. 능동문 ‘우리가 산을 보다.’를 피동문 ‘산이 (우리에게) 보이다.’로 바꿀 때, 피동문의 ‘우리에게’는 생략이 가능하다. 즉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피동문에서는 능동문에 비해 서술어의 자릿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피동은 ‘보이다’와 같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과 연결 어미 ‘-아/어’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구성에 의한 피동으로 나뉜다. 그런데 국어에는 ‘날씨가 풀렸다.’처럼 피동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자연적 발생이나 변화를 표현하는 문장이 그러하다.

- ㉠ 산이 눈에 덮였다.
- ㉡ 종이가 갈기갈기 찢겼다.
- ㉢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
- ㉣ 동생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 ㉤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 ① ㉠과 ㉤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과 ㉤의 부사어가 능동문의 주어로 나타나겠군.
- ② ㉡과 ㉢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어나겠군.
- ③ ㉢은 능동사 어간에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가 결합함으로써 구성된 피동문의 사례이군.
- ④ ㉣은 피동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응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군.
- ⑤ ㉤과 같은 피동문의 예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22004-0059]

## 03 &lt;보기 1&gt;을 바탕으로 할 때, &lt;보기 2&gt;에서 규범적으로 옳은 문장만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1 |

‘-하다’로 끝나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에는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쓴다. 예를 들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꾸준히 공부시켰다.’와 같은 사동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은 꾸준히 공부했다.’라는 주동문과 대응된다. 그런데 ‘해변에 구급대원을 배치시키다.’와 같은 문장에서 ‘배치시키다’는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두다.’라는 뜻인 ‘배치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이런 경우는 굳이 사동사를 쓸 필요 없이 ‘-하다’로 끝나는 주동사로 쓰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다.

| 보기 2 |

- ㄱ.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한자 쓰기를 반복시켰다.
- ㄴ. 대학 당국은 다음 학기에 김 교수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 ㄷ. 경찰은 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 ㄹ. 직업소개소에서 우리 회사에 두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시켰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04~05] 다음 &lt;보기&gt;와 &lt;자료&gt;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기 |

높임 표현이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높이고 낮추는 대상에 따라 높임 표현은 크게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이는 주로 조사, 어미 등 문법 형태소로 표현되지만 특수 어휘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 한편 높임의 대상이 주체일 때 그것을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달리, 높임 대상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 한다. 그리고 국어에는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존재한다.

| 자료 |

미래: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제가 요즘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 손님들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하니 간혹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 계셔서 당황했어요. 점장님께서는 앞으로 “손님, 손님께서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 하셨는데, 이 말이 적절한 높임 표현인지 궁금해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절한 높임 표현이 아니야. 왜냐하면 [A]

미래: 아, ㉣ 그렇군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04-0060]

## 0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기를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려는 것이겠군.
- ② ㉡은 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부사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③ ㉢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목적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④ ㉣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⑤ ㉤은 보조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22004-0061]

## 05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가 '손님'인데도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 ② '께서'를 통한 주체 높임과 '-시-'를 통한 주체 높임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란다.
- ③ '손님께서 주문하신 커피'에서 '주문하신'의 주어는 사물이므로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이란다.
- ④ '커피'가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 ⑤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높임의 주격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주어 뒤에 '께서'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란다.

[22004-0062]

## 06 &lt;보기&gt;의 ㉗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부정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장이 부정문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탐구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국어에는 부정어와만 어울려 부정문에서만 쓰일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전혀, 결코, 별로, 비단, 그다지, 도무지’ 등이 그 예입니다. 가령 ‘그 지식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다./\*비전문적이다.’에서 ‘전문적이지 않다’는 ‘전혀’와 잘 어울리고 있으나 ‘비전문적이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탐구 결과를 반영하여, ‘그 지식은 전문적이지 않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은 비전문적이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 ㉑~㉗이 부정문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활동을 해 볼까요?

- ㉑ 이번에는 물려서지 마라.
- ㉒ 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다.
- ㉓ 남편은 아침을 안 먹는다.
- ㉔ 그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 ㉕ 통계 수치가 부정확하다.

학생:  ㉗

선생님: 네, 잘했습니다.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㉑은 ‘\*이번에는 결코 물려서라.’와 달리 ‘결코’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㉒은 ‘\*네 실수는 비단 그것만이다.’와 같이 ‘비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㉓은 ‘남편은 아침을 도무지 안 먹는다.’와 같이 ‘도무지’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④ ㉔은 ‘그 제안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와 달리 ‘별로’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⑤ ㉕은 ‘통계 수치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와 달리 ‘그다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1004-0039]

**01** <보기>를 참고할 때, ㉠이 나타난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부사어는 문장의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지만 서술어에 따라서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필수적 부사어는 세 자리 서술어인 일부 용언이나 두 자리 서술어 중의 일부 용언이 취한다.

- ① 오늘은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
- ② 저기 걸어오는 사람은 철수와 매우 비슷하다.
- ③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모두 회의에 참가했다.
- ④ 나는 등갯길에 지하철역에서 옆 사람의 발을 밟았다.
- ⑤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1004-0040]

**02**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제시된 문장의 결합 방식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홑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겹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문장의 확대라고 하는데, 홑문장과 홑문장이 이어진 겹문장을 이어진문장이라고 한다. 이어진문장에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 있다. 한편 전체 문장이 홑문장을 안고 있는 겹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이때 다른 홑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보기 2」

- ㉠ 나는 빵을 먹으며 우유를 마셨다.
- ㉡ 영화는 파란 물감으로 꽃을 그렸다.
- ㉢ 어미 코끼리는 덩치가 매우 크다.
- ㉣ 내 동생은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다.

- ① ㉠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②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과 ㉡은 겹문장을 이루는 홑문장의 주어 중에서 하나가 생략되어 있다.
- ④ ㉢은 안은문장에서 생략된 주어가 안긴문장의 주어와 일치한다.
- ⑤ ㉣은 여러 수식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홑문장이다.

[21004-0041]

### 0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관형사절은 안긴문장의 서술어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때 안긴문장 내에 생략되는 성분이 있는지에 따라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로 구분된다. 관계 관형사절은 그것이 꾸며 주는 체언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성분이 빠져 있는 관형사절이다. 동격 관형사절은 한 문장을 이루는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관형사절이다. 관계 관형사절과 달리 동격 관형사절을 삭제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불완전해진다.

- 경찰관 여럿이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 나는 ㉡네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 나는 ㉢내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놀랍다.
- 나는 ㉣내 친구가 빌려준 책을 무척 흥미롭게 읽었다.
- ㉠학교 뒤뜰에 피어 있는 철쭉이 나에게 무척 인상적이었다.
- ㉡그가 주변의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다.

- ① ㉠은 그 자체로는 문장을 이루는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춘 절이라고 할 수 없군.
- ② ㉡과 ㉢은 각각 그것이 꾸며 주는 체언인 ‘사실’과 ‘소문’의 내용을 나타내는군.
- ③ ㉡, ㉢, ㉣은 관형사절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군.
- ④ 생략된 체언의 성분을 볼 때, ㉠, ㉡과 달리 ㉢에서는 관형사절이 꾸며 주는 체언이 관형사절의 목적어에 해당하는군.
- ⑤ ㉡과 ㉢으로 미루어, 동일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 관계 관형사절이 되기도 하고 동격 관형사절이 되기도 하는군.

[21004-0042]

## 04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피동문은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이나 작용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고 행위나 작용의 주체는 부사어로 나타나거나 생략된다. 피동문은 용언의 어간에 파생 접사를 붙이거나 ‘-아지다/-어지다’를 붙여 만들기도 하고, 일부 명사의 뒤에 ‘-되다’, ‘-받다’와 같은 접미사를 붙여 만들기도 한다. 한편 행위나 작용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한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라는 피동문에 대응되는 ‘고양이가 쥐를 잡다.’라는 능동문이 있듯이, 피동문은 일반적으로 능동문과 대응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능동문에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피동문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행위 주체의 의지나 의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주체에 미치는 외부의 작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① 이 팬을 사용하니 글씨가 잘 써진다.
- ② 열린 창문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 ③ 구름 건힌 하늘이 더욱 푸르게 보인다.
- ④ 이 벽은 단단해서 못이 잘 박히지 않는다.
- ⑤ 어제 화재 속에서 인부 다섯 명이 구조되었다.

[21004-0043]

## 05 <보기>의 예문을 통해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아버지께서는 글을 잘 쓰신다.
- ㉡ 할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신다.
- ㉢ 김 선생님께서는 댁에 (계시다/\*있으시다).
- ㉣ 교장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있으십니다/\*계십니다).
- ㉤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쭙어보도록/\*물어보도록) 하자.
- ㉥ \*영수야,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라고 하셨어.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으로 미루어, 행위의 주체를 높일 때는 용언의 어간 뒤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붙이거나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군.
- ② ㉡으로 미루어, 주체와 긴밀하게 관련된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와 다른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는군.
- ③ ㉢에서 직접 높임 표현을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한 용언 앞에 ‘안’을 붙이거나 용언의 어간 뒤에 ‘-지 않다’를 붙여 활용하면 되겠군.
- ④ ㉤으로 미루어, 객체를 높일 때는 특수한 용언을 사용해서 높임을 실현하는군.
- ⑤ ㉥의 높임 표현을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용언에 조사 ‘요’를 붙여 상대인 선생님을 높여야겠군.

[21004-0044]

**01** <보기>에 제시된 ㄱ~ㄷ의 문장의 구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그분이 재배한 복숭아는 맛이 없었으나 모양이 예뻐다.
- ㄴ. 오빠는 마음이 어질었고 주변에 훌륭한 친구도 많았다.
- ㄷ. 내가 어제 구입한 시집을 동생이 모르게 서랍에 넣었다.

탐구 자료	탐구 결과
ㄱ, 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 안겨 있다. .... ㉠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 ㉡
ㄱ, ㄷ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 안겨 있다. .... ㉢
ㄱ, ㄴ, ㄷ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 안겨 있다. .... ㉣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된 절이 안겨 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21004-0045]

**0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관형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내의 미술관에 저 아름다운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었어. 그 단아한 조각상은 당시 관람객의 심금을 울렸지.

- ① ‘아름다운’, ‘단아한’을 보니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는군.
- ② ‘저’, ‘그’를 보니 품사가 관형사인 단어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는군.
- ③ ‘저 아름다운’, ‘그 단아한’을 보니 문장 안에서 관형어가 연달아 쓰이기도 하는군.
- ④ ‘아름다운’, ‘그’, ‘단아한’을 보니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관형어도 존재하는군.
- ⑤ ‘시내의’, ‘관람객의’를 보니 체언에 관형격 조사를 결합한 형태가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는군.

[21004-0046]

### 03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인칭 표현, 시간 표현,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의 문법 요소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문법적 변화를 고려할 때,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가 된다.

어제 아들은 지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나에게 “제가 내일 여기에 있을게요.”라고 말했다.

- ① 제가 오늘 여기에 있겠다고
- ② 제가 내일 거기에 있겠다고
- ③ 자기가 오늘 거기에 있겠다고
- ④ 자기가 내일 여기에 있겠다고
- ⑤ 자기가 내일 거기에 있겠다고

[21004-0047]

### 0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시간 표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어제 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 그래서인지 우리들에게 용돈을 주셨어.
- (2) 올해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구나. 앞이 말라 떨어진 걸 보니 농사는 다 지었다.

- ① (1)의 ‘같더라’에서 ‘-더-’는 과거 어느 때의 경험을 회상하여 전달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② (1)의 ‘주셨어’에서 ‘-었-’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2)의 ‘극심한’과 ‘떨어진’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 어간에 붙어 시간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2)의 ‘지었다’에는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표현하기 위해 ‘-었-’이 사용되었다.
- ⑤ (1)의 ‘어제’는 완료상을 표현하기 위해, (2)의 ‘올해’는 진행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1004-0048]

05 다음은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피동 표현	㉡ 사동 표현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접미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는데, 그중 ‘-이-’, ‘-히-’, ‘-리-’, ‘-기-’와 같이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함.	

- ① ㉠: 어제 큰오빠는 뒷집 개에게 팔을 물렸다.
- ② ㉠: 그 형은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받혔다.
- ③ ㉡: 그는 우리 동생과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 ④ ㉡: 칭얼대던 아이가 결국 엄마 등에 업혔다.
- ⑤ ㉡: 우리 형은 그 아이들에게 시집을 읽혔다.



[21004-0049]

01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친구가 빵을 먹었다.
- ㉡ 빵을 친구가 먹었다.
- ㉢ 친구도 빵을 먹었다.
- ㉣ 언니 빵을 진짜 좋아하잖아.
- ㉤ 어머니께서는 아침으로 늘 빵을 드셨다.

- ① ㉠을 보니,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여 주어가 되었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내에서 주어의 위치는 바뀔 수 있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보조사가 붙어서도 주어가 될 수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주격 조사가 없어도 주어가 될 수 있군.
- ⑤ ㉠과 ㉤을 비교해 보니, 보조사를 통해 주체를 높일 수 있군.

[21004-0050]

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장미가 향기가 좋다.  
㉠
- (나) 키가 크고 모자를 쓴 남자가 외삼촌이다.  
㉡      ㉢      ㉣

- ① ㉠은 문장 (가)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 속에서의 주어는 문장 (가)의 주어와 다르다.
- ③ ㉡과 ㉣은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 ④ ㉢의 주어는 ㉡ 속에서의 주어와 같다.
- ⑤ ㉣은 문장 (나)의 서술어이다.

[21004-0051]

## 03 &lt;보기&gt;의 안긴문장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그가 범인입이 밝혀졌다.
- 농부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 나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었다.
- 그는 ㉣내가 고향에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 ㉤학교 앞을 지나가던 여학생이 나를 쳐다봤다.

- ① ㉠과 ㉡은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 ② ㉡과 ㉢은 조사와 직접 결합해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④ ㉣과 ㉤은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생략할 수 있다.

[21004-0052]

## 04 &lt;보기&gt;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 사동문이 주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줄어든다. 이때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동문에서 사동문이 파생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존재하지 않아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① 엄마가 아기를 재운다.
- ② 아이들이 팽이를 돌린다.
- ③ 형이 짐을 집 안으로 옮긴다.
- ④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힌다.
- ⑤ 따뜻한 햇살이 고드름을 녹인다.



[21004-0053]

**05** 다음은 부정 표현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는 비문법적 표현)	탐구 내용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그를 안 만났다. / 만나지 않았다.</li> <li>• 나는 그를 못 만났다. / 만나지 못했다.</li> </ul>	부정문에는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있다.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를 만나지 마라. / *아니해라. / *못해라.</li> <li>• 그를 만나지 말자. / *아니하자. / *못하자.</li> </ul>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수는 *못 행복하다. / 행복하지 못하다.</li> <li>• 우리 집은 그리 *못 넓다. / 넓지 못하다.</li> </ul>	형용사 구문에는 긴 부정문에 한해서만 ‘못’ 부정문이 쓰인다.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이 안 예쁘다. / *못 예쁘다.</li> <li>•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 / *못하다.</li> </ul>	주체의 의지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안’ 부정문이 쓰인다.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엽수는 추위에 잘 *안 견딘다. / 못 견딘다.</li> <li>• 그는 서울 지리를 잘 알지 *않았다. / 못했다.</li> </ul>	주체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부정할 때는 ‘못’ 부정문이 쓰인다.



20003-0185

01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예문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문장을 쓸 때에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되어 있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목적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부사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문	분석
①	그 일은 여간 어려워서 시간 내에 다 끝낼 수가 없었다.	부사어 '여간'과 서술어 '어려워서'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이다.
②	내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강조해야 한다.	주어 '내가 ... 점'과 서술어 '강조해야 한다'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③	지원서 서식은 저희 회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세요.	목적어 '지원서 서식은'과 서술어 '내려받으세요'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④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사어 '모름지기'와 서술어 '알아야 한다'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⑤	인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다.	목적어 '환경을'과 서술어 '적응하기도'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이다.

20003-0186

02 <보기>는 밑줄 친 부사어를 탐구하기 위한 예문이다. 밑줄 친 부사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엄마가 통에 김치를 가득 담았다.  
 ㉡ 다행히 나는 돈 없이도 여행을 잘 다녔다.  
 ㉢ 아주 새 연필을 사서 찰 유용하게 쓰고 있다.

- ① ㉠: '통에'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고 '가득'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였다.
- ② ㉡: '통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고 '가득'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다.
- ③ ㉢: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잘'은 '다녔다'만을 꾸민다.
- ④ ㉡: '돈 없이도'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 ⑤ ㉢: '아주'는 관형사 '새'를 꾸미고 '찰'은 서술어 '쓰고 있다'를 꾸민다.

20003-0187

## 03 &lt;보기&gt;의 ㉠~㉤의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세요.
- ㉡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행을 떠났다.
- ㉢ 형이 나에게 그 일을 해 달라고 말했다.
- ㉣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 ‘불을 줄이세요’에 ‘물이 끓으면’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② ㉡: 부사절 ‘아무런 준비도 없이’가 ‘여행’을 꾸며 주는 안은문장이다.
- ③ ㉢: ‘형이 나에게 그 일을 해 달라고’가 직접 인용된 안은문장이다.
- ④ ㉣: ‘그 사람의 발언은’이 주어이고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가 서술어인 홑문장이다.
- ⑤ ㉤: ‘인생은 짧고’와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20003-0188

## 04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lt;보기&gt;의 ㉠과 ㉡의 의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기 ]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섬’, ‘배경 상황’, ‘목적/의도’, ‘조건/가정’, ‘이유/원인’, ‘양보’, ‘동시 상황’ 등의 일정한 의미적 역할을 한다. 예컨대 ‘-(으)면’은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가정’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예 ㉠ 길이 막힐 것 같으면 ㉡ 지하철로 갈 거예요.

- ① 배가 고프니까 우리 밥부터 먹자.
- ② 동생은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해.
- ③ 일출봉에 해가 뜨거든 날 불리 주오.
- ④ 큰언니는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 ⑤ 길을 가는데 아주 옛 친구를 만났어요.



20003-0189

**05** <보기>의 ㉠~㉤을 A~C로 분류할 때,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 눈앞에 드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다.
- ㉡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 ㉢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에 내가 산다오.
- ㉣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 우리는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A: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B: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C: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A	B	C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0003-0190

## 01 밑줄 친 부분이 &lt;보기&gt;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서술어는 ‘무엇이 무엇이다/어떠하다/어찌하다’라는 문장에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다. 서술어는 보통 ㉠단일한 용언이나 ㉡체언+이다’로 이루어지지만,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모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예로는 여러 개의 본용언이 결합하는 경우 및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① ㉠: 나는 학교에 갔었어.
- ② ㉠: 옷을 사서 바로 입었어.
- ③ ㉡: 내가 말한 책이 이거야.
- ④ ㉢: 얼른 점심부터 먹어 봐.
- ⑤ ㉣: 오늘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네.



20003-0191

## 02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 ㉡에 해당하는 문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지원이와 정현이는 '명령문'에 대한 발표 수업을 준비하다가 길에서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사는 오염 물질 배출을 당장 그만두라!

지원: 저 문장도 명령문이네!

정현: 맞아. 그런데 오늘 배운 명령문은 '웃어라.', '읽어라.'와 같이 모두 '-아라/-어라'를 사용했잖아. 그러면 '그만두라!'도 '그만뒤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원: 잠깐만,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에서 찾아볼게. 아, 여기 설명이 있다.

...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한 상황일 때에는 직접 명령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직접적 대면 상황이 아닌 인쇄 매체나 구호 등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할 때에는 간접 명령형이 사용된다. 이는 용언의 어간에 '-(으)라'가 결합되어 실현된다. ...

정현: 그럼 '그만뒤라!'는 ㉠직접 명령문이고, '그만두라!'는 ㉡간접 명령문이구나.

	㉠	㉡
①	불 좀 꺼 줘라.	불 좀 꺼라.
②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라.
③	훌륭한 교사가 되라.	훌륭한 교사가 되어라.
④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라.
⑤	밥 좀 먹여라.	밥 좀 먹어라.

20003-0192

##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교의 자랑인 국어 답사 수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학과 언어를 주제로 하여 해마다 현장 답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시나 소설의 배경이 된 곳, 작가가 태어나고 ㉢생활한 곳, 지역 방언을 만날 수 있는 곳 등 학생들이 직접 주제와 장소를 정하고, 함께 준비하여 현장을 둘러봅니다. 올해의 주제는 ‘세종 대왕’으로 정했습니다. 세종 대왕은 조선 시대의 왕으로 국어 시간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종 대왕릉이 ㉣있는 곳과 한글 박물관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 ① ㉠: 발표 내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겠-’이 사용되었어.
- ② ㉡: 올해에는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므로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어.
- ③ ㉢: 동사의 관형사형에 사용된 어미 ‘-ㄴ’은 과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어.
- ④ ㉣: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어.
- ⑤ ㉤: 자신의 계획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어.

20003-0193

## 04 &lt;보기&gt;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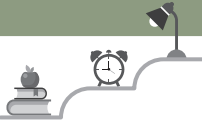
학생: 선생님, ‘읽히다’는 왜 피동으로도 쓰이고, 사동으로도 쓰이나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읽다’와 결합하는 피동 접미사도 ‘-히-’이고, 사동 접미사도 ‘-히-’라서 사동사와 피동사가 동일한 형태인 ‘읽히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피동과 사동은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의미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먹다’의 사동은 ‘먹이다’지만, 피동은 ‘먹히다’로 그 ㉡형태가 같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학생: 네, 선생님. 그러면 동사에 따라 피동사와 사동사를 함께 공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사동사는 되지만 피동사는 되지 않는 경우, ㉣피동사는 되지만 사동사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경우도 함께 알아 두세요. 또 사동 표현이 접미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 용언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 ① ㉠: ‘뜯다’에 접미사 ‘-기-’가 붙는 ‘뜯기다’는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 ② ㉡: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이고, ‘보여지다’는 ‘보다’의 사동사이다.
- ③ ㉢: ‘없애다’는 ‘없다’의 사동사인데, ‘없다’의 피동사는 없다.
- ④ ㉣: ‘끓기다’는 ‘끓다’의 피동사인데, ‘끓다’의 사동사는 없다.
- ⑤ ㉤: ‘먹다’의 사동 표현으로 ‘먹게 하다’가 가능하다.



20003-0194

## 0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같은 중의성을 가지는 예를 만들 수 없는 동사는?

보기

윤오: 우리 국어 시간 발표 주제는 뭘로 할까?

경민: 나는 중의성과 관련된 내용이 재미있었어. '-고 있다'가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가 가능한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어떨까?

윤오: 음, 그런데 오늘 배운 대로라면, '-고 있다'가 모든 동사와 어울려서 중의적인 문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학교에 가고 있다.'에서는 진행상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완료상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경민: 그러면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와 만들지 못하는 동사의 예들을 좀 더 많이 조사해서 발표를 하면 어떨까? '가다'는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지 못하지만, '신다'는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 '㉠신발을 신고 있다.'는 신는 동작의 진행과 착용 완료 후의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모두 가능하니까.

윤오: 그래. 좋아. 나도 그런 동사를 더 찾아볼게.

- ① 들다: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
- ② 매다: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엮고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
- ③ 지다: 묻었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닦이거나 씻겨 없어지다.
- ④ 짚다: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 ⑤ 하다: 장신구나 옷 따위를 갖추거나 차려입다.





20003-0195

01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용언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민서: 선생님, ‘운동화를 신고 있다.’에서 ‘있다’는 보조 용언인데, ‘운동화를 사 신다.’에서 ‘신다’는 왜 보조 용언이 아닌가요?

선생님: 보조 용언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즉 본용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고서, -아서, -어서’ 등을 끼워 넣을 수 없어요. ‘운동화를 사 신다.’라는 문장에서 용언은 ‘사다’와 ‘신다’인데, 둘 다 문법적인 의미가 아닌 단어의 원래 의미대로 쓰였고, ‘운동화를 사서 신다.’라고 할 수 있으니 둘 다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이지요.

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본용언과 보조 용언, 본용언과 본용언은 모두 서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전의 설명을 바탕으로 아래 문장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모두 찾아 구별해 볼까요?

동생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엄마에게 도서관 간다고 말해 줘.”라면서 다시 밖으로 달려 나가 버렸다.

본용언	보조 용언
㉠	㉡

①	㉠	내리다, 놓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나가다
	㉡	주다, 버리다
②	㉠	내리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나가다
	㉡	놓다, 주다, 버리다
③	㉠	내려놓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나가다
	㉡	주다, 버리다
④	㉠	내려놓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	주다, 나가다, 버리다
⑤	㉠	내리다, 가다, 말하다, 달리다
	㉡	놓다, 주다, 나가다, 버리다



20003-0196

## 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 ㉠ 아버지는 할머니께 진지를 차려 드리셨다.
- ㉡ 선생님은 책을 읽고 계셨다.
- ㉢ 할아버지께서는 책이 많으시다.

- ① ㉠은 문장의 부사어를 통해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있다'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③ ㉢에는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말을 높이는 간접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 ④ ㉠, ㉡은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 ⑤ ㉠, ㉢은 모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높임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20003-0197

## 03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문을 <보기 2>에서 찾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 ㉠ '-았-/-었-'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을 나타낸다.
- ㉡ '-았었-/-었었-'은 과거의 일을 표현하거나, 과거의 일이 현재에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한다.
- ㉢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 사용한다.

보기 2

- ㉠ 5분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 ㉡ 나는 그때 밥을 먹고 있었다.
- ㉢ 넌 이제 큰일 났다.
- ㉣ 하늘이 참 예쁘더라.
- ㉤ 벚꽃이 아름다웠대.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20003-0198

## 04 &lt;보기&gt;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21학번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할인에 혜택을 더하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은 자동 할인! 무제한으로 ㉢쌓이는 적립금까지!㉣믿기지 않겠지만, 100% 증정 사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 ① ㉠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바꿀 수 없다.  
 ② ㉡은 능동사 ‘담그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③ ㉢의 능동사의 어간은 사동 접미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④ ㉣은 능동사의 어간에 ‘-기-’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⑤ ㉤은 능동사 ‘준비하다’의 ‘준비’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20003-0199

## 05 다음은 ‘부정 표현’에 대해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월 ○일 “부정 표현”

(1) 안 부정문

- 의미: ㉠단순 부정, ㉡의지 부정(자의 부정)- 짧은 부정: 부정 부사 ‘안(아니)’ / 긴 부정: ㉢‘-지 않다(아니하다)’를 사용함.

(2) 못 부정문

- 의미: ㉣능력 부정, 타의 부정

- 짧은 부정: 부정 부사 ‘못’ / 긴 부정: ‘-지 못하다’를 사용함.

(3) 부정문 제약: ㉤청유문, 명령문에는 ‘-지 말다’가 사용됨.

- ① ㉠: 앞으로 과소비는 안 하려고.  
 ② ㉡: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③ ㉢: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④ ㉣: 너는 이따가 게임 못 해!  
 ⑤ ㉤: 밥을 남기지 마세요.



9003-0185

01 <보기>의 ㉠~㉤의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팡이가 빨리 돈다.
- ㉡ 명수가 호빵을 집었다.
- ㉢ 반지가 언니에게 어울린다.
- ㉣ 민희가 노래를 예쁘게 부른다.
- ㉤ 형주가 진서와 의견을 교환했다.

- ① ㉠: ‘...가 돌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 ‘...가 ...을 집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 ‘...가 ...에게 어울리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 ‘...가 ...를 ...게 부르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⑤ ㉤: ‘...가 ...와 ...을 교환하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9003-0186

0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할머니가 손녀에게 “아버지 좀 모시고 오너라.”라고 말할 때, 할머니에게 손녀의 아버지는 높일 필요가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자인 손녀에게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의도적으로 ‘모시다’라는 객체 존대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는 화자에게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청자를 의식해서 높여 주는 경우가 있다.

- 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방에서 잡니다.
- ② (회사 경비원이 방문객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 ③ (회사 직원이 상사에게) 오늘 부산에 출장 가지지요?
- ④ (동생이 형에게) 어제 받은 세뱃돈을 어머니께 드렸어.
- ⑤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영호야, 너희 아버지는 나가셨니?

9003-0187

**03** <보기>를 바탕으로 명령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그 친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라/ \*가지겠어라.
- ㉡ 언니가 나에게 빨래를 걷으라고 한다.
- ㉢ 그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넌 걱정하지 마/ \*않아.
- ㉣ 내가 지나가게 옆으로 조금만 비켜 줘.
- ㉤ \*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게 눈 좀 좋아라.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을 보니, 명령문에는 선어말 어미 ‘-겠-’을 쓰지 못하는군.
- ② ㉡을 보니, 명령문이 간접 인용될 때에는 명령형 어미가 ‘-으라’로 되는군.
- ③ ㉢을 보니, 금지하는 명령을 할 때에는 동사 ‘말다’를 사용하는군.
- ④ ㉣을 보니, 1인칭 주어가 명령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군.
- ⑤ ㉤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없군.

9003-0188

**04** <보기>의 ㉠~㉤을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 ㉠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할게요.
- ㉡ 오늘은 폭우가 오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 ㉢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 ㉣ 너처럼 계속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
- ㉤ 나는 어제 간 음악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안은문장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9003-0189

## 05 <보기>의 ㉠~㉣은 안은문장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나는 언니가 빌려 온 책을 금방 다 읽었다.
- ㉡ 진영이가 그 선행의 주인공임이 밝혀졌다.
- ㉢ 아버지께서는 밤이 늦도록 안 들어오셨다.
- ㉣ 형이 나에게 “진수가 오늘 와.”라고 했다.
- ㉤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 아주 너그로우시다.

- ① ㉠의 안긴절은 명사 ‘책’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은 명사절 ‘진영이가 그 선행의 주인공임’을 안은 문장이다.
- ③ ㉢에서 안긴절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같아서 생략되었다.
- ④ ㉣에서 안은문장의 주어인 ‘형’이 발화한 말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 ⑤ ㉤의 안긴절은 안은문장 속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9003-0190

**01**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관형사와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나: 선생님,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예쁜 꽃'의 '예쁜'은 왜 관형어라고 하나요?  
 선생님: 유나가 품사와 문장 성분을 헷갈렸구나. 품사는 단어를 형태적·기능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을 말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각 부분을 구분한 것이란다. 즉, '관형사'는 '명사', '동사'와 같은 품사의 한 종류로, 형태적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으며,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말해. 반면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말들을 통틀어 이르는데, 관형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고,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단다. 또한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나 용언의 관형사형도 모두 관형어가 될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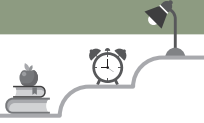
- ① '새 옷, 옛 친구'의 '새, 옛'은 관형사이자 관형어이다.
- ② '착한 친구'의 '착한'은 품사는 형용사,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 ③ '큰 사과'의 '큰'은 형용사 '크다'가 활용한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 ④ '오늘 우리 만나자.'에서 '오늘'은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예이다.
- ⑤ '형의 옷을 빌려 입었다.'에서 '형의'는 '옷'을 꾸미니까 관형어이다.

9003-0191

**02** 다음 글을 읽고 '어미'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어미라고 하면 혼자 단어도 되지 못하고, 겨우 단어의 일부분에 되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이 맡은 문법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는 문장의 종결과 연결이라는 기능을 결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보태기도 한다. 어미에는 그 어미로써 한 단어가 끝나는 어말 어미와 그 뒤에 반드시 다른 어미가 와야만 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뛰겠다, 뛰겠고'에서 가장 끝에 있는 '-다, -고'는 어말 어미이며, 어간 '뛰-'와 어말 어미 '-다, -고' 사이의 '-겠-'은 선어말 어미이다. 이때 '-겠-'은 미래 시제, 추측, 의지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 ① 윤호: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군.
- ② 지수: 문장의 연결을 결정하는 어미는 선어말 어미이군.
- ③ 혜영: '사흘 전에 끝났겠다.'에는 선어말 어미가 두 개 쓰였군.
- ④ 영민: '어머니께서는 키가 크시다.'에서 '-시-'는 선어말 어미이군.
- ⑤ 은정: '지금 단풍이 한창이겠다.'에서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군.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보조 용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용언, 혹은 ‘체언+서술격 조사’로 이루어지지만 둘 이상의 용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보세요.

- (가) 민수는 새 옷을 입어 보았다.
- (나) 순희가 영화를 보고 있다.
- (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봐.

이렇게 용언이 둘 이상일 때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본용언,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보조 용언도 의미를 나타내므로 본용언만으로는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와 (나)에서의 본용언은 각각 ‘입다’와 ‘보다’입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매개하는 어미로는 ‘-아/-어’, ‘-고’ 등이 쓰입니다. ㉤본용언 하나에 보조 용언이 두 개 이상 쓰일 수도 있는데요, (다)에서의 본용언은 ‘기다리다’이고, 보조 용언으로는 ‘있다’와 ‘보다’가 쓰였습니다.

9003-0192

**03** ㉠~㉤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003-0193

**04** 다음은 보조 용언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구한 내용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함께 쓰여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건이나 행위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정의 의미 역시 보조 용언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 ② ㉠: 어제 말한 책은 사 봤어.
- ③ ㉡: 장미가 시들어 가네.
- ④ ㉡: 지금 학교로 가고 있어.
- ⑤ ㉢: 두 사람은 친구인가 보다.



9003-0194

**05** 예문 ㉠~㉣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 탐구할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모둠은?

- ㉠ 아버지가 키가 아주 크시다.
- ㉡ 백화점이 구두가 만 원이 싸다.
- ㉢ 영미는 짜장면을 세 그릇을 주문했다.

- ① 1모둠: ㉠~㉣에서는 한 문장에서 동일한 조사가 여러 번 사용되었어. 이유를 알아보자.
- ② 2모둠: ㉠에서 ‘키가 아주 크시다’는 서술절이라고 하던데, 서술절이 무엇일까?
- ③ 3모둠: ㉡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자.
- ④ 4모둠: ㉠과 ㉡에서 ‘아버지’와 ‘백화점’을 설명하는 관형사절을 분석해 보자.
- ⑤ 5모둠: ㉢에서는 조사 ‘을’이 결합한 두 문장 성분의 관계를 살펴보자.



9003-0195

01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학습 활동〉									
목표	부사격 조사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문장 만들기								
방법	아래 ‘목록’의 조사를 사용하여 예문 만들기								
목록	부터, (으)로, 보다, (으)로서, 에서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의미</th> <th>예문</th> </tr> </thead> <tbody> <tr> <td>도구</td> <td>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의미	예문	도구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	㉡	⋮	⋮
	의미	예문							
	도구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	㉡							
⋮	⋮								

	㉠	㉡
①	근거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②	방향	나는 골목길로 발길을 돌렸다.
③	이유	우리 반보다 인원이 많으니까 유리하지.
④	방법	모둠장으로서 나는 역할을 다했다.
⑤	출발점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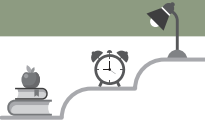
9003-0196

### 02 <보기>의 ㉠~㉤에 나타난 문장의 중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예쁜 언니의 목걸이를 빌리고 싶었다.
- ㉡ 나는 어제 친구와 친구 동생을 만났다.
- ㉢ 누나가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 ㉣ 8시가 되자 형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
- ㉤ 그때 오빠는 새로 산 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 ① ㉠: 관형어 ‘예쁜’이 수식하는 것이 ‘언니’일 수도 있고, ‘언니의 목걸이’일 수도 있다.
- ② ㉡: ‘나와 친구’가 ‘친구 동생’을 만난 경우와 ‘나’가 ‘친구와 친구 동생’을 만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 ‘누나가 모자를 쓰지 않고 학교에 갔다.’, ‘누나가 모자를 쓰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갔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혀 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게 지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⑤ ㉤: 구두를 신고 난 후의 상태의 유지를 의미하는 완료상 또는 구두를 신는 동작 중임을 나타내는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9003-0197

### 03 <보기>를 참고할 때, 인용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용절이란 남의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옮겨 와서 다른 문장에 안긴 절을 말한다. 자신의 말이나 생각도 인용절로 표현할 수 있다. 인용절은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뉜다. 직접 인용절은 남의 말이나 글, 또는 생각을 표현한 문장을 그대로 따오는 것을 말한다. 간접 인용절은 남의 말을 그대로 따오지 않고 화자의 관점에 따라 변형하여 따오는 것이다. 이때 인용절의 주어가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생략될 수 있다.

- (가) 영수: “나 민희 좋아해.”
- (나) 영수는 나에게 “나 민희 좋아해.”라고 말했다.
- (다) 영수는 나에게 자기가 민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가)는 영수가 한 말이다. 영수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나)는 직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이고, (다)는 간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이다. (가)에서 영수가 한 말은 인용절의 내용이 되는 말로 피인용문이라 하고, (나)와 (다)의 ‘라고’와 ‘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말하다’는 인용 동사로, 인용절을 포함하고 있는 안은문장의 서술어를 말한다. 인용 동사로는 주로 말하는 행위와 관련한 동사들이 사용된다.

- ① (나)의 인용절을 안은문장에는 동사 ‘이야기하다, 소리치다’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② (다)의 인용절에서 ‘자기가’는 생략될 수 있다.
- ③ (나)와 (다)의 인용절에서의 주어는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 ④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은 피인용문이 누구의 말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 ⑤ 조사 ‘라고’는 직접 인용절에, ‘고’는 간접 인용절에 사용된다.

9003-0198

04 <보기>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어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전학 가잖아, 정우. 다음 주에.  
나: 응. 수업 마치고 같이 살까, 작은 선물이라도?  
다: 그래. 우리 쪽 편지도 쓰자.

- ① ‘가’를 통해 주어가 문장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가’를 통해 어순이 바뀐다고 문장의 핵심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나’를 통해 대화에서 서술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다’에서 부사어가 서술어보다 앞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03-0199

05 <보기>의 ㉠~㉤에 나타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2019년 3월 ○○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소설 ○○ 배우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내 짝에게 책을 ㉡읽히셨음.  
내 짝은 나랑 책에 낙서하면서 놀다가 이름이 ㉢불리자  
벌떡 일어나다 책상에 ㉣부딪히고  
나는 낙서가 ㉤보일까 봐 얼른 책 덮느라 분주했던 하루.

- ① ㉠과 ㉡에 사용된 접사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다.
- ② ㉠과 ㉡에 사용된 접사 대신 ‘-어지다’를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③ ㉢은 ‘부르다’에 사동 접사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 ④ ㉣은 ‘부딪치다’에 피동 접사가 결합한 피동사이다.
- ⑤ ㉤은 사동 표현 ‘보게 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 03 <보기 1>의 ㉠~㉣과 <보기 2> ㉠~㉤의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8003-0184

(보기 1)

관형사절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중 하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말과 동일한 말이 관형사절에서 생략된다. 가령 아래 ㉡에서 ‘학생’을 두 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줄 친 관형사절에서 ‘학생이’를 생략한 것이다.

㉡ 선생님께서 (학생이) 친구에게 선물을 베푸는 학생을 칭찬하셨다. (← 선생님께서 학생을 칭찬하셨다. + 학생이 친구에게 선물을 베풀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관형사절 내에서 ㉠ 주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지만, ㉢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고 ㉣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다.

(보기 2)

- ㉠ 이것이 우리가 멧돼지를 잡은 몽둥이이다.
- ㉡ 어제 나는 그 소설가를 아는 친구와 만났다.
- ㉢ 형은 내가 이름을 적어 놓은 가방을 탐낸다.
- ㉣ 요즈음 키가 큰 학생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 ㉤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위생은 더욱 중요하다.

	㉠	㉢	㉣
①	b	a, c	d, e
②	b	c, e	a, d
③	a, d	c	b, e
④	b, c	d, e	a
⑤	b, d	e	a, c

8003-0185

0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이룬 것으로 이해할 때, ㉠~㉤의 의문문을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1)

대명사의 미지칭 용법과 부정칭 용법은 의문문의 종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지칭 대명사는 모르는 대상을 알기 위해 물을 때 쓰이는 것이고, 부정칭 대명사는 어떤 대상을 특징적으로 꼭 집어서 가리키지 않을 때 쓰이는 것인데, 이 둘은 보통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홀 문장에서 미지칭 대명사는 설명 의문문에만 쓰이지만, 부정칭 대명사는 판정 의문문에 쓰이고 더 나아가서 평서문, 명령문 등 다양한 종결 표현에서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가령, 탁자 밑을 보지 않은 채 손으로 더듬으면서 “여기 뭐가 있네.”라는 평서문에서의 ‘뭐’는 미지칭 대명사 ‘뭐’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부정칭 대명사이다.

(보기 2)

- 가: ㉠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나: 저는 화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 가: ㉡ 요즘 누구하고 연애해?  
나: 지난달부터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 가: ㉢ 저는 뭘 먹을까요?  
나: 삼계탕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 가: ㉣ 수희야, 그 볼펜 어디에서 샀어?  
나: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문구점에서 샀어.
- 가: ㉤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  
나: 옛날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8003-0186  
**05** <보기 1>의 ㉠~㉣ 중 <보기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주격 조사 ‘께서’를 붙이는 방법,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어간에 붙이는 방법, ㉡ 주체 높임의 특수한 용언을 쓰는 방법이 있다. 한편, 객체를 높이는 방법은 ㉢ 부사어를 높이는 조사 ‘께’를 체언에 붙이는 방법, ㉣ 객체 높임의 특수한 용언을 쓰는 방법이 있다. 그 외 ㉤ 특수한 명사를 써서 어떤 대상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보기 2)

어제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할머니께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한 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달 보름께 한 번 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갈 생각입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02~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표현은 관점에 따라 달리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례로서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 하나의 문법적 기능을 하여 그것이 하나의 복합 단위로 분석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1) 가. 나는 민수가 순희를 사랑함을 안다.  
 나. 선영이는 삼촌이 이미 떠났음을 안다.  
 다. 우리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 (2) 가. 나는 민수가 순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나. 선영이는 삼촌이 이미 떠난 것을 안다.  
 다. 우리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란다.

‘(1)-가’는 ‘(2)-가’로, ‘(1)-나’는 ‘(2)-나’로, ‘(1)-다’는 ‘(2)-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는 것, -(으)ㄴ 것, -(으)ㄹ 것’이 명사형 어미 ‘-(으)ㄴ, -(으)ㄹ’를 대치할 수 있다. 그런데 (2)의 밑줄 친 부분은 형식적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형성하는 관형사절이 의존 명사 ‘것’을 꾸미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것’은 의미적으로 매우 포괄적이어서 특정하게 가리키는 사물이 없다. 다시 말해 ‘-는 것, -(으)ㄴ 것, -(으)ㄹ 것’ 전체가 명사형 어미처럼 기능하여 명사절을 형성한다. 이러한 명사절은 사건이나 상태, 현상이나 사실을 나타낸다.

- (3) 가. 저기 하늘에 뜬 것이 애드벌룬이다.  
 나. 네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라.  
 다. 나는 동생이 먹을 것을 양보했다.

(2)의 예와는 달리 (3)에서는 ‘것’이 특정하게 가리키는 사물이 있다. 의미적으로 (3)에서 ‘저기 하늘에 뜬’, ‘네가 좋아하는’, ‘동생이 먹을’이라는 관형사절은 특정 사물 ‘것’을 꾸며 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3)과 대조해 볼 때 (2)의 ‘-는 것, -(으)ㄴ 것, -(으)ㄹ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관형사형 어미 + 것’이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하나의 명사형 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형식적 관점에 따르면 (2)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절이 명사 ‘것’을 꾸며 주는 구조의 명사구가 되지만, 기능적 관점에 따르면 (2)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형 어미 + 것’이 명사형 어미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된다.

이처럼 문법적 분석은 관점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것’을 사물뿐 아니라 사건이나 상태, 현상이나 사실을 넓게 뜻하는 말로 이해한다면, 굳이 기능적 관점을 따르지 않아도 (2)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는 것, -(으)ㄴ 것, -(으)ㄹ 것’을 명사형 어미로 다루지는 않는다.

8003-0188

## 02 기능적 관점에 따라 때, 밑줄 친 부분의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우리는 진수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
- ② 누나는 내가 먹다 남긴 것을 버렸다.
- ③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책이니?
- ④ 그가 말하는 영화는 내가 본 것이 아니다.
- ⑤ 푸른 것은 하늘이요, 넓은 것은 들판이구나.

8003-0189

## 03 앞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 부정이 단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못’ 부정은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 ② ‘-겠-’과 마찬가지로 ‘-(으)ㄴ 것이-’는 미래의 의미나 화자의 추측 또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형용사에 붙으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지만 동사에 붙으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④ ‘먹었다’에서 ‘-었-’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것과 같이 ‘먹느냐’에서 ‘-느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 ⑤ ‘-니’와 같은 종결 어미는 의문문임을 표시하는 기능도 하고 상대 높임의 해라체 등급을 표시하는 기능도 한다.



## 0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003-0190

(보기)

- ㉠ 어제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참 많더라.
- ㉡ 지금쯤 춘천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겠다.
- ㉢ 어제 우리 집에 외할아버지께서 오셨었다.
- ㉣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것을 보니 즐겁다.
- ㉤ 화단에는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 ① ㉠: ‘-더-’를 씌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군.
- ② ㉡: ‘-겠-’을 씌으로써 미래의 일에 대해 추측한 사실을 말하고 있군.
- ③ ㉢: ‘-었었-’을 씌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과거 사건의 결과와는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군.
- ④ ㉣: ‘-고 있-’을 씌으로써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군.
- ⑤ ㉤: ‘-어 있-’을 씌으로써 어떤 사건이 끝나고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말하고 있군.

## 0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003-0191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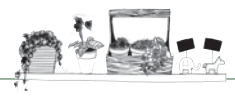
능동문과 피동문은 서로 대응하고, 주동문과 사동문도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피동문이 있는 능동문, ㉠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는 피동문, ㉡ 대응하는 사동문이 있는 주동문, ㉢ 대응하는 주동문이 있는 사동문이 존재한다. 그런데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능동문,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 대응하는 사동문이 없는 주동문, ㉤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도 간혹 있다. 예컨대 능동사 ‘풀다’의 피동사는 ‘풀리다’이므로 능동문 “언니가 의심을 풀었다.”에 대응하는 피동문 “의심이 풀렸다.”가 있다. 그러나 “날씨가 풀렸다.”에 대응하는 능동문은 없다.

- ① ㉠: 그는 이번 추천에서 순위가 밀렸다.
- ② ㉡: 할머니께서 아기를 업으셨다.
- ③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있다.
- ④ ㉣: 그 지역 사람들이 더위를 먹었다.
- ⑤ ㉤: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도록 해라.



# 문법 07

## 문장 ③



8003-0192

### 01 <보기>의 ㉠과 ㉡에 동시에 해당하는 관형사절인 것은?

(보기)

관형사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가) 선생님께서 엄마를 도와 드린 희주를 칭찬하셨다. (← 선생님께서 희주를 칭찬하셨다. + 희주가 엄마를 도와 드렸다.)
- (나) 나는 형이 그 말을 한 기억이 없다. (← 나는 기억이 없다. + 형이 그 말을 했다.)
- (다) 형사는 범인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형사는 사실을 깨달았다. + 범인이 도주했다.)

(가)에서는 원래의 두 문장에 있는 공통 요소 ‘희주’가 밑줄 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나), (다)에는 ㉠ 원래의 두 문장에 공통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밑줄 친 관형사절 속에 생략된 말이 없다. 한편, (나), (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관형사절도 다시 ㉡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없는 것과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종결 어미가 있는 경우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형태상 (가)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와 차이가 없다.

- ① 홍길동 씨가 그 유명한 작품을 그린 화가이다.
- ② 우리는 그 건물이 무너진 사고를 잘 알고 있다.
- ③ 정희는 이 사진을 찍은 공원에 오늘 다시 갔다.
- ④ 내가 어제 본 영화는 부산 국제 영화제 개막작이다.
- ⑤ 나는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여행을 연기했다.



[02~0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희: 성훈 선배! ㉠ 여기에서 뭐 ㉡ 해요?

성훈: ㉠ 목요일에 발표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 모아 놓았던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

현수: 과제가 뭔데요?

성훈: 자기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조사해서 ㉢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거야.

지희: 선배는 ㉣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성훈: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환경 운동이야.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그린피스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 그때부터 그린피스에서 ㉤ 일하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모아 왔어.

현수: 그린피스요? 환경 보호 단체잖아요. 한국에도 그린피스 지부가 있어요?

성훈: ㉥ 응, 2011년에 한국에도 그린피스 지부가 생겼어. 거기에서 활동하고 싶어.

8003-0193

02 ㉠가 속하는 문장 성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어가 의미하는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된다.
- ②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③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④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을 꾸며 주는 데에 쓰인다.
- ⑤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을 꾸며 주는 데에 쓰인다.

8003-0194

03 ㉠~㉣ 중 ㉡와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8003-0195

### 04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니까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는 것이 원칙이야.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정호: 예, 선생님. 그런데 ‘원칙’이라고 하셨으면, 원칙의 예외가 되는 문장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응, 그래. 드물지만 피동문에 목적어가 나타날 때가 있어. 어떤 문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볼까?

정호: 네, “㉠”와 같은 문장이 그에 해당되겠네요.

- ① 그 형이 진희에게 아기를 안겼다.
- ② 명호가 그 무거운 돌을 움직였다.
- ③ 그 사람이 형에게 상해를 입혔다.
- ④ 수지가 버스 안에서 발을 밟혔다.
- ⑤ 동주가 책상 사이 간격을 넓혔다.

8003-0196

### 05 <보기>의 부정 표현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날이 흐려 해가 잘 보이지 않는다.
- ㉡ 지금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안/\*못 있다}.
- ㉢ 여기에서는 너무 {떠들지 마라, \*안/\*못 떠들어라}.
- ㉣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알지 못했다, \*안/\*못 알았다}.
- ㉤ 흥부네 집은 {넉넉하지 않다/못하다, \*안/\*못 넉넉하다}.

\*는 비문법적 표현

- ① ㉠: 긴 부정의 ‘안’ 부정문이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데에 쓰였다.
- ② ㉡: ‘있다’를 부정하기 위해 별개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 ③ ㉢: 부정 명령에는 ‘안’, ‘못’ 부정이 아닌 ‘-지 말다’ 부정만 쓰일 수 있다.
- ④ ㉣: 별개의 어휘를 쓰거나 긴 부정의 ‘못’ 부정문을 사용하여 ‘알다’를 부정하였다.
- ⑤ ㉤: ‘넉넉하다’는 ‘안’ 부정문이든 ‘못’ 부정문이든 짧은 부정이 사용될 수 없다.